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현황 및 방향성 탐색*

- 1998년과 2016년의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

김홍주** · 조영관***

천주교 서울대교구 · 동성고등학교 교장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바탕으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국의 가톨릭계 중등학교의 종교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교육과 관련한 현 실태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그리고 1998년에 이루어진 연구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및 관련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이를 확인하여 종교교육의 변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1998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업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윤리·도덕·인성교육’ 수업 비중은 증가하였다. 종교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비중은 반대로 더욱 낮아졌다. 둘째, 종교교육 여건 및 환경과 관련하여, 교직이수 및 서울대학교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 비율이 증가하였다. 종교교사의 상당수가 교육 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학생과 교사 모두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부정적으로 종교교육을 인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 본 원고는 김홍주(2017)의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조영관)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 확립 (2) 종교 교과서 활용 증대 (3)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내는 종교교육 (4)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 (5)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 (6)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7)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교교육.

주제어 :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 역사, 종교교육과정, 종교교사 및 학생, 종교 교과서

I. 서론

가톨릭교회에서 가톨릭 학교는 ‘인간의 종교성과 특히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을 알리며 교육할 수 있는 탁월한 장소’¹⁾이다. ‘가톨릭 학교’는 모든 인간 문화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다. 곧,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의 현장이자 완전한 교육의 현장이며, 신앙과 문화, 삶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활동의 장(場)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의 영역에서 교회의 현존은 가톨릭 학교를 통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난다.²⁾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宗教教育, Religious Education)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과이다.³⁾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을 통해 문화와 인류에 대한 참다운 연구로 풍요로워지며⁴⁾, 학생들은 그리스도교의 중대한 공헌을 깨달아 선을 추구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비교와 비평 의식을 연마하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현재를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현명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 수 있다”⁵⁾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은 1855년 ‘성 요셉 신학교’가 설립된 이후 지속

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5항.

2) 같은 글, 8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제13호(200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1항.

3) 교황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69항.

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제41호(201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7항.

5) 같은 글, 17항.

되었으며⁶⁾, 2017년 현재 초등학교 6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38개의 학교에서 가톨릭 학교 이념 및 정신에 부합하는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⁷⁾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가 지금까지 걸어온 ‘종교교육’의 여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유산이다.

이러한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역사 및 현 실태에 대한 연구는 조영관(1998)⁸⁾에 의하여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조영관은 전국의 29개 가톨릭계 고등학교 종교교사 29명과 학생 1,405명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의 현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 연구는 당시의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의 상황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후에도 유사한 두 차례의 연구가 있었으나⁹⁾, 각자의 특수한 목적에 따른 연구였기 때문에 종교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종교교육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정신에 따른 교육을 실천해 왔을 뿐 아니라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의 완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와 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어 왔고 학교 종교교육과정도 변화해 왔다. 따라서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상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오늘날 다종교 및 다문화 사회 안에서 종교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라 여기고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 분위기까지 맞물려, 결국 가톨릭 학교 안에서 종교교육을 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안에서 관련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곧, 이제 사회의 변화 안에서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고, 어떠한 장점 및 문제점, 개선사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현 실태를 1998년 연구와 비교 분석하며, 변화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한 실태 분석 자료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토대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6)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4,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259~260쪽

7)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한국천주교회 통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41쪽

8) 조영관,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98).

9)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김울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현황 조사」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 자료집』(서울: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05).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전국의 가톨릭계 중등학교의 종교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종교교육과 관련한 현 실태를 조사 및 정리하였다. 둘째, 도출된 현 실태를 지난 1998년에 이루어진 조영관의 연구 조사 결과와 함께 비교하여 지난 약 2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 및 관련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종교교육의 변화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언하고, 특히 본 연구는 일회적인 조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정기적인 조사가 가능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논의 전개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이 현재의 교육 제도 안에서 공교육적인 보편성과 종립학교의 특수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탐색하는 데에 일종의 근거가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톨릭 학교가 처한 현실

가톨릭 학교는 정치·경제·문화·사회 전체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전반적인 현 실태 뿐만 아니라 한국 중등학교 교육이 처한 상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¹⁰⁾

안병초(2013)는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①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의 상실 ②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 확보 어려움 ③ 가톨릭적인 교육(신앙교육, 인성교육, 사회 정의 교육, 생명 및 환경 교육 등)의 부재 ④ 교회 내 관심 부족(지원, 연구, 교목 사제 양성 등) ⑤ 교원 양성 과정의 부족 ⑥ 세속화와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종교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을 언급하였다.¹¹⁾

현재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가 처한 현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교육 정책 때문에 가톨릭 학교 정체성 구현이 어렵다.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은 일반 학교의 목적인 ‘전인교육’과 가톨릭 교회의 특수성인 ‘복음화’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종교교육’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등 사학 종교교육과 관련한 실정

1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6항.

11) 안병초, 『교육의 길을 가다』, 서울: 마리아회유지재단 출판사, 2013, 134~135쪽, 147~149쪽, 160~161쪽, 182~186쪽, 195~200쪽.

법의 태도는 가톨릭 학교 정체성 구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¹²⁾

둘째, 가톨릭 학교는 세속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에 대한 과학 지식의 설명이 설득력을 더해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성’(神性)에 의존하지 않으며, 절대적인 가치 대신 상대적인 관점과 합리적인 계산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는 한국 천주교회의 ‘성사 참여율’ 하락과 함께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속화에 영향을 받은 가톨릭계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¹³⁾

셋째, 종교교육 목적 및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평준화 정책 이후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은 ①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교육(종파교육) ② 종교교양교육 차원의 종교교육(종교에 대한 교육)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져 왔다. 그런데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향한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관심이 더욱 커지며 상대적으로 ‘종파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가톨릭 학교의 복음화 사명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종교교육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¹⁴⁾

넷째, 가톨릭 학교에 대한 교회 내의 관심이 부족하다. 교회법 802조에는,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을 소임이 있다”¹⁵⁾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가톨릭 학교’에 대한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ARA(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는 가톨릭 신자수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¹⁶⁾

12)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어지는 2항은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을 역(逆)으로 해석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자유’라는 명제가 성립이 가능하다. 반면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종교교육의 인정 및 존중의 근거가 된다. 이처럼 교육 관련 법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종교를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자유가 보장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박재운 외, 『가톨릭 학교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서울: 가톨릭 문화원, 2007, 75~76쪽, 180~181쪽, 194~199쪽.

13) 이현송, 「불분명한 믿음과 미국 사회의 세속화?」, 『한국사회학』 제43권 제4호(서울: 한국사회학회, 200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철학』,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 59~60쪽.

14) 김경이, 「학교 종교수업, 수업을 생각할 것인가?」, 송순재 엮음, 『왜 기독교학교인가: 기독교학교교육』, 서울: 기독한교, 2014, 276~281쪽.

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447쪽(제802조).

16) Cf.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CARA), *Global Catholicism: Trends & Forecasts*, Georgetown University, 2015.4., pp.13~14; pp.21~22; pp.29~30; pp.37~38; p.45.

2.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필요성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는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교육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미 여러 교회 문헌 및 학자들은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¹⁷⁾

조영관(1998)은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① 일반 교육의 통합으로서 종교교육 ② 가톨릭계 학교의 ‘복음화’ 사명과 종교교육 ③ 윤리 및 도덕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④ 인간교육과 전인교육으로서 종교교육 ⑤ 한국의 다종교 상황과 종교교육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¹⁸⁾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에서는 가톨릭 종교교육이 ① 도덕 교육과 더불어, 개인적이고 사회적 책임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시민의 덕을 키우는 데에 도움 ②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지식을 전수 ③ 학교 안에서 학문 분야로서의 기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문헌은 말하고 있다.¹⁹⁾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재 가톨릭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기여할 수 있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의 참된 도구로서 교회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 교육을 실천하여야 하는데²⁰⁾, 이러한 가톨릭 학교 고유의 사명과 교육 계획은 바로 ‘종교교육’을 통하여 실현된다.²¹⁾ 왜냐하면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신앙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학교는 종교교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이를 가르치는 종교 교사들을 세심하게 양성하여야 한다.²²⁾

둘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인격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은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교육을 내포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종교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교육의 전반(全般)에 통합되는 것”이라고 말한다.²³⁾ 곧, 학교란 문화

1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제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19항.

18) 조영관,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45~52쪽.

19)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73~74항.

2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1항.

2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15항.

22) 베네딕토 16세, 『주님의 말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111항.

2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19항.

적 유산과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전인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특히 ‘종교교육’은 전체 인격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향한다는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²⁴⁾ 이러한 인격의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인성 교육 전체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결국,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인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²⁵⁾

셋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공동선 확립에 보탬이 된다.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 따라 설립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 이를 토대로 가톨릭 학교는 지금까지 시민 사회의 향상과 인간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인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에서 특히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은 ‘가난의 극복’과 ‘평화의 추구’와 같은 공동선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가치들을 내면에 체득할 수 있으며, 공익에 대한 봉사 및 공동선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²⁶⁾

넷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의 환경을 제대로 이해함에 있어 ‘종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톨릭 학교는 문화 간 교육에 있어 효과적인 장소인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 및 문화에 대하여 갈등이 아닌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하고자 노력하는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⁷⁾ 실제로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에서도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가톨릭 학교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문화를 지향하며, 다양한 문화들을 신앙의 조명을 통해 가치 지향적으로 해석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⁸⁾

다섯째,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은 전인적 교육을 완성시킨다.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교의 교과과정에 들어있는 ‘종교수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의 모든 교육적 행위와 환경 속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의 증진뿐만 아니라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다.²⁹⁾ 또한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보내게 되는 학습 시간과 양성 시간 곳곳에서 그리스도교의 세계관, 인생관, 문화관, 역사관을 통한 지식 습득과 더불어 영적인 지혜 획득 또한 가능하게 해준

2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26~29항.

2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17항.

2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15~16항.

2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11~13항; 문화체육관광부,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23, 42~44쪽.

28)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71쪽.

29)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74항.

다. 이를 통해 가톨릭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풍요로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인간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³⁰⁾

III. 연구 방법

1. 조사 개요

1) 연구문제

본 연구(이하 ‘2016년 조사’로 혼용 표기)는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가 어떻게 종교교육³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종교교사 및 학생들의 현황, 전반적인 만족도 및 인식 정도 등을 일차적으로 파악한 뒤, 조영관의 1998년 연구 조사(이하 ‘1998년 조사’로 표기)와 함께 그 동안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종교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2) 종교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3) 종교교사의 여건은 어떻게 되는가? (4) 종교교육이 진행되는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5)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 인식은 어떠한가? (6)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7) 종교교육시 타종교 학생에 대한 배려는 어떠한가?

또한 본 연구는 가톨릭계 중등학교,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종교교육 담당자 및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을 진행하였는데, 1998년 조사와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도 고등학교 종교교육 담당자 및 학생들을 재추출하여 정리, 비교분석 하였다.

30)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47항;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서 있는 가톨릭 학교」, 14항; Thomas H. Groome, *Will There Be Faith? :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NY: HarperOne, 2011, p.238;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104쪽.

31)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한 ‘종교교육’의 의미는 ‘종교수업’과 ‘종교활동’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 참조: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 46쪽.

2) 조사의 기본 설계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전국의 가톨릭계 중등학교 6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당 1명 이상의 종교교사와 교사가 임의로 선정한 학년 및 학급의 학생들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종교교사용 설문지’는 설문에 동의한 종교교사들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학생용 설문지는 각 학교 종교교사에게 설문지 사본 50부를 기본으로 하여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구 내 학교수 비율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46개 학교 내 52명이 응답한 종교교사용 설문지와 44개 학교 내 3,384명이 응답한 학생용 설문지를 본 조사의 표집하였다.

<표 1> 교구 내 학교 대비 응답 비율

순번	지역	교구내 학교수		응답 학교 수 (교사)		응답 인원 (교사)		응답 학교 수 (학생)		응답 인원 (학생)	
		N	%	N	%	N	%	N	%	N	%
1	서울교구	5	7.8	5	10.9	6	11.5	5	11.4	308	9.1
2	부산교구	4	6.3	3	6.5	3	5.8	3	6.8	111	3.3
3	인천교구	5	7.8	4	8.7	5	9.6	4	9.1	485	14.3
4	수원교구	3	4.7	2	4.3	2	3.8	2	4.5	100	3.0
5	대전교구	8	12.5	8	17.4	10	19.2	8	18.2	763	22.5
6	청주교구	3	4.7	1	2.2	2	3.8	1	2.3	39	1.2
7	대구교구	18	26.6	13	28.3	13	25.0	11	25.0	766	22.6
8	마산교구	4	6.3	0	0.0	0	0.0	0	0.0	0	0.0
9	전주교구	4	6.3	3	6.5	4	7.7	2	4.5	153	4.5
10	광주교구	5	7.8	2	4.3	2	3.8	2	4.5	230	6.8
11	원주교구	2	3.1	1	2.2	1	1.9	2	4.5	211	6.2
12	안동교구	2	3.1	2	4.3	2	3.8	2	4.5	55	1.6
13	제주교구	2	3.1	2	4.3	2	3.8	2	4.5	163	4.8
합계		65	100.0	46	100.0	52	100.0	44	100.0	3,384	100.0

〈표 2〉 응답자 학교별 구분

학교 구분	교사 응답수 % (N)	학생 응답수 % (N)
중학교	36.5 (19)	47.5 (1,606)
고등학교	63.5 (33)	52.5 (1,778)
합계	100.0 (52)	100.0 (3,384)

(2) 조사기간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질문지 설계를 위한 자료수집: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 31일
- ② 질문지 1차 제작: 2016년 2월 1일 ~ 28일
- ③ 1차 예비조사 및 수정: 2016년 3월 2일 ~ 11일
- ④ 2차 예비조사 및 수정: 2016년 3월 14일 ~ 25일
- ⑤ 최종 수정 및 질문지 확정: 2016년 3월 28일 ~ 4월 1일
- ⑥ 질문지 발송 및 회신(회수) - 교사용 질문지: 2016년 4월 4일 ~ 4월 29일
- 학생용 질문지: 2016년 4월 4일 ~ 5월 27일

이렇게 수집된 자료(raw data)는 부호화(coding), 전산 입력(punching), 논리적 오류 검출(editing)과 검증(verification)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0.0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질문지의 응답 분석에 있어서 자유 응답 문항에 대하여는 자유 응답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여 키워드를 분류한 뒤 통계화하였고, 학생용 설문 자료의 분석에서는 다중응답 분석 및 Chi-Square 검증(적합도와 상관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표본집단의 일반적 특성

1) 설문 응답 종교교사 현황

응답에 참여한 학교 내 종교교사 인원 구성은 ‘여자 수도자’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 ‘사제’³²⁾가 많았다. 한 학교에 ‘여자 수도자’가 2명이 있는 학교는 8개 학교였으나 ‘남자 수도자’가 있다는 학교는 단 한 개 학교(1명)로 나타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여자 수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³³⁾

〈표 3〉 응답자 교내 종교교사 인원 구성

응답 (학교당)	사제 % (N)	남자 수도자 % (N)	여자 수도자 % (N)	평신도 교사 % (N)
1명	51.9 (27)	1.9 (1)	55.8 (29)	11.5 (6)
2명	1.9 (2)	0.0 (0)	15.4 (8)	9.6 (5)
3명	0.0 (0)	0.0 (0)	0.0 (0)	0.0 (0)
4명	0.0 (0)	0.0 (0)	0.0 (0)	0.0 (0)
5명	0.0 (0)	0.0 (0)	0.0 (0)	1.9 (1)

* 본 설문에서는 응답 교사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하였다.

2) 설문 응답 학생 지역별 구분

본 조사에서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교구는 대구 지역이었으며, 이어서 대전, 인천, 서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교구의 경우는 지역 내 18개 가톨릭계 중등학교 중에서 12개의 학교가 학생 설문에 응해주었다.

〈표 5〉 학교 소속 지역

순번	지역	전체 % (N)	중학생 % (N)	고등학생 % (N)	남학생 % (N)	여학생 % (N)
1	서울교구	9.1 (308)	5.5 (88)	12.4 (220)	34.1 (105)	65.9 (203)
2	부산교구	3.3 (111)	0.0 (0)	6.2 (111)	47.7 (53)	52.3 (58)

32) 본 조사에서는 ‘교구 및 수도회 사제’를 모두 통틀어 항목에 ‘사제’라 표기하였다.

33) 본 조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종교교사들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다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현재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중 자신은 어떠한 신분 상태인지에 대한 질문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응답한 종교교사들의 신분별 비율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3	인천교구	14.3 (485)	22.4 (360)	7.0 (125)	39.4 (191)	60.6 (294)
4	수원교구	3.0 (100)	4.1 (66)	1.9 (34)	69.0 (69)	31.0 (31)
5	대전교구	22.5 (763)	31.2 (501)	14.7 (262)	24.2 (185)	75.8 (578)
6	청주교구	1.2 (39)	0.0 (0)	2.2 (39)	59.0 (23)	41.0 (16)
7	대구교구	22.6 (766)	11.6 (186)	32.6 (580)	53.9 (413)	46.1 (353)
8	전주교구	4.5 (153)	0.0 (0)	8.6 (153)	67.3 (103)	32.7 (50)
9	광주교구	6.8 (230)	10.3 (165)	3.7 (65)	0.0 (0)	100.0 (230)
10	원주교구	6.2 (211)	6.2 (99)	6.3 (112)	100.0 (211)	0.0 (0)
11	안동교구	1.6 (55)	1.7 (27)	1.6 (28)	0.0 (0)	100.0 (55)
12	제주교구	4.8 (163)	7.1 (114)	2.8 (49)	0.0 (0)	100.0 (163)
합계		100.0 (3,384)	47.5 (1,606)	52.5 (1,778)	40.0 (1,353)	60.0 (2,031)

IV. 연구 결과

1. 종교수업의 내용

1) 교육내용 및 비율

종교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비율과 관련하여 2016년 조사에서 종교 일반은 14.37%, 타종교 이해는 12.81%, 가톨릭 이해는 18.44%, ‘윤리·도덕·인성교육’은 44.06%의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윤리·도덕·인성교육’의 비율은 1998년의 연구와 비교하여 10% 정도 높게 나왔으며, 반면 ‘가톨릭 이해’를 포함한 다른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아졌다.

〈표 9〉 종교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비율

항목		M	0% (N)	10% (N)	20% (N)	30% (N)	40% (N)	50% (N)	60% (N)	70% (N)	80% (N)	90% (N)	100% (N)	무응답% (N)	합계% (N)
종교 일반	2016 조사	14.37	18.2 (6)	39.4 (13)	24.2 (8)	12.1 (4)	0.0 (0)	3.0 (1)	0.0 (0)	0.0 (0)	0.0 (0)	0.0 (0)	0.0 (0)	3.0 (1)	100.0 (33)
	1998 조사		7.4 (2)	48.1 (13)	18.5 (5)	7.4 (2)	3.7 (1)	7.4 (2)	7.4 (2)						100.0 (27)
타종교 이해	2016 조사	12.81	24.2 (8)	30.3 (10)	33.3 (11)	9.1 (3)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3.0 (1)	100.0 (33)
	1998 조사		14.8 (4)	48.1 (13)	14.8 (4)	22.2 (6)	0.0 (0)	0.0 (0)	0.0 (0)						100.0 (27)
가톨릭 이해	2016 조사	18.44	15.2 (5)	33.3 (11)	24.2 (8)	6.1 (2)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3.0 (1)	3.0 (1)	100.0 (52)
	1998 조사		3.7 (1)	22.2 (6)	29.6 (8)	18.5 (5)	11.1 (3)	14.8 (4)	0.0 (0)						100.0 (27)
윤리 · 도덕 · 인성교 육	2016 조사	44.06	3.0 (1)	9.1 (3)	15.2 (5)	12.1 (4)	15.2 (5)	12.1 (4)	12.1 (4)	3.0 (1)	6.1 (2)	3.0 (1)	6.1 (2)	3.0 (1)	100.0 (33)
	1998 조사		0.0 (0)	18.5 (5)	22.2 (6)	22.2 (6)	14.8 (4)	0.0 (0)	22.2 (6)						100.0 (27)
기타	2016 연구	8.68	51.5 (17)	24.2 (8)	15.2 (5)	0.0 (0)	0.0 (0)	3.0 (1)	0.0 (0)	0.0 (0)	0.0 (0)	3.0 (1)	0.0 (0)	0.0 (0)	100.0 (33)
	1998 조사		40.7 (11)	48.1 (13)	11.1 (3)	0.0 (0)	0.0 (0)	0.0 (0)	0.0 (0)						100.0 (27)

*1998년 조사의 경우는 보기 항목을 '60~100%'라 표시하였다.

2) 종교수업시 종교교육 교재(교과서) 사용 여부

1998년 조사에서는 종교교사의 77.8%가 종교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표 10〉 종교수업 시간에 종교교재(교과서) 사용여부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사용한다	77.8 (21)	36.4 (12)
사용하지 않는다	22.2 (6)	63.6 (21)
합계	100.0 (27)	100.0 (33)

3) 종교수업시 종교교육 교재(교과서)의 비중

종교수업시 종교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1998년 조사에서 48.1%이었는데, 2016년 조사에서는 24.2%를 기록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1998년 조사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종교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 2016년 조사에서는 교과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종교교사의 비율이 전체의 63.6%를 차지하였다.

〈표 11〉 종교수업시 교과서의 비중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교과서를 주로 이용하고 그 외 자료를 보충한다	14.8 (4)	12.1 (4)
교과서와 기타 자료를 반반씩 사용한다	33.3 (9)	12.1 (4)
교과서 외의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	51.9 (14)	12.1 (4)
기타방법이용	0.0 (0)	0.0 (0)
무응답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음)	0.0 (0)	63.6 (21)
합계	100.0 (27)	100.0 (33)

4) 종교수업 교재(교과서) 만족도

2016년 조사에서 교재(교과서)에 대한 종교교사들의 만족도는 지난 1998년 조사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조사에서는 종교교육 교재(교과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말한 종교교사들

도 이번 조사의 비율보다 더 낮았다. ‘보통’이라 답한 응답자도 이번 조사가 높으며, ‘불만족’하다는 담당자의 비율도 2016년 조사가 1998년 조사보다 더 적었다.

〈표 12〉 종교수업 교재(교과서)의 만족도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매우 만족	0.0 (0)	9.1 (3)
어느 정도 만족	7.4 (2)	9.1 (3)
보통	48.1 (13)	54.5 (18)
약간 불만족	44.4 (12)	24.2 (8)
매우 불만족	0.0 (0)	3.0 (1)
합계	100.0 (27)	100.0 (33)

2. 종교수업 평가 방법

1) 평가 여부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학기말 평가를 한다고 응답한 종교교사들의 비율과 인원수가 1998년 조사는 33.3%를 기록한 반면 2016년 조사에서는 39.4%를 기록,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학기말 평가 여부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평가를 하고 있다	33.3 (9)	39.4 (13)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66.7 (18)	54.5 (18)
무응답	0.0 (0)	6.1 (2)
합계	100.0 (27)	100.0 (33)

2) 평가 방법

1998년과 2016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객관식 시험 평가’나 ‘논술식 시험 평가’ 등의 시험평가방식은 거의 없어졌고, 반면 ‘출석률 및 태도 평가, 과제물 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평가’ 등의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표 14〉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학기말 평가 방법

항목	1998년 조사 %(N)	2016년 조사 %(N)
객관식 시험 평가	22.2 (4)	6.3 (1)
논술식 시험 평가	16.6 (3)	0.0 (0)
면접 평가	0.0 (0)	6.3 (1)
사회봉사 평가	0.0 (0)	12.5 (2)
출석률 및 태도 평가	11.1 (2)	25.0 (4)
과제물 평가	16.7 (3)	31.3 (5)
기타 방법	5.6 (1)	18.8 (3)
합계	100.0 (13)	100.0 (16)

3. 종교교사의 여건

1)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종류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교직이수’를 한 종교교사들이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철학교사 자격증 소지 교사의 인원도 증가하였으며, 반면 ‘없음’이라고 답한 교사들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표 15〉 설문에 응답한 종교교사의 자격증 소지 종류

종류	1998년 조사 %(N)	2016년 조사 %(N)
교직이수	11.1 (3)	39.4 (13)
서울대학교 종교교사 연수과정	51.9 (14)	42.4 (14)
철학교사 자격증	0.0 (0)	9.1 (3)
기타	3.7 (1)	3.0 (1)
없음	33.3 (9)	6.1 (2)
합계	100.0 (27)	100.0 (33)

2) 종교교육에 대한 어려움

종교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1998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곧, 1998년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항목인 ‘종교교육 자료의 부족’은 2016년 조사에서는 9.1%로 약 10% 정도의 비율이 감소하였던 반면, ‘종교교과와 관련한 교육제도의 미비’에 대한 응답률은 약 8% 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교과 뿐 아니라 종교행사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상황’에 대한 응답률도 약 9% 정도가 증가하였다.

〈표 16〉 종교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항목	1998년 조사 %(N)*	2016년 조사 %(N)
내용이 미흡한 종교 교과서	항목에 포함 안 됨	3.0 (1)
종교교육 자료의 부족	19.4 (13)	9.1 (3)
교과 뿐 아니라 종교행사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상황 (담당 인원 부족)	13.4 (9)	24.2 (8)
종교교사를 위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부재	16.4 (11)	9.1 (3)
학생들의 무관심	16.4 (11)	6.1 (2)

종교교과와 관련한 교육제도의 미비	19.4 (13)	27.3 (9)
종교교육에 대한 예산 부족	11.9 (8)	항목에 포함 안 됨
잘 모르겠다	항목에 포함 안 됨	3.0 (1)
기타	3.0 (2)	12.1 (4)
무응답	0.0 (0)	6.1 (2)
합계	100.0 (67)	100.0 (33)

*1998년 조사에서는 본 질문은 중복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4. 종교교육 환경

종교교육 담당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종교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종교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변화가 있었다. 지난 조사보다 긍정적인 중요성을 더 많이 응답한 항목은 ‘성당(경당), 각종 성상, 십자고상(각 교실)’이었던 반면, 지난 조사보다 응답률이 하락한 항목은 ‘종교교실, 성체조배실, 종교상담실, 성모동산’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학생들의 종교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 종교 시설

항목	1998년 조사 %(N)	2016년 조사 %(N)
종교교실	28.7 (27)	16.1 (19)
성당(경당)	17.0 (16)	23.7 (28)
성체조배실	3.2 (3)	0.0 (0)
종교상담실	14.9 (14)	10.2 (12)
각종 성상	7.4 (7)	14.4 (17)
십자고상(각 교실)	11.7 (11)	17.8 (21)

성모동산	16.0 (15)	11.0 (13)
기타장소	1.1 (1)	5.1 (6)

* 본 질문은 중복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5.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 인식

1) 가톨릭계 학교 재학 인식

가톨릭 학교 재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1998년 조사와 이번 조사 둘 다 평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매우 자랑스럽다’ 및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표 18〉 가톨릭계 학교 재학에 대한 인식

정도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매우 자랑스럽다	8.9 (125)	11.3 (201)
대체로 만족한다	35.4 (498)	37.9 (673)
보통이다	51.0 (717)	41.5 (738)
약간 불만족스럽다	3.8 (54)	6.4 (114)
매우 불만족스럽다	0.6 (9)	1.7 (30)
무응답	0.1 (2)	1.2 (22)
합계	100.0 (1,405)	100.0 (1,778)
평점	3.48	3.47

* 비교의 타당성을 위하여 2016년 조사는 ‘고등학교 재직교사’의 응답으로만 분석하였다.

2) 종교교육의 필요성 인식

① 기본 의견

종교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인식이 변화하였는지 199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만족도 평점이 3.38점에서 3.19점으로 낮아졌다. 특히 ‘필요 없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과거 조사 때와 비슷했으나, ‘보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약 16% 높아지고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 비율은 약 16%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평점에 있어서도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9〉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성 인식

정도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반드시 필요하다	10.8 (152)	5.7 (102)
필요하다	43.1 (606)	32.7 (581)
보통이다 ³⁴⁾	24.0 (337)	40.1 (713)
별로 필요없다	17.4 (244)	15.8 (281)
전혀 필요없다	4.6 (65)	4.9 (88)
무응답	0.1 (1)	0.7 (13)
합계	100.0 (1,405)	100.0 (1,778)
평점	3.38	3.19

* 비교의 타당성을 위하여 2016년 조사는 ‘고등학교 재직교사’의 응답으로만 분석하였다.

② 부정적 인식 이유

학생들이 느끼는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유의 결과를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천주교의 종교 내용만을 너무 강조해서’와 ‘내용이 너

34) 조영관(1998)의 논문에서는 해당 항목을 ‘그저 그렇다’로 명시하였다.

무 고리타분해서' 등의 항목은 지난 1998년 조사 당시보다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반면, '원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입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 세 항목은 응답 비율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1998년 조사 당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20〉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유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나의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9.2 (39)	8.1 (49)
천주교의 종교 내용만을 너무 강조해서	20.6 (87)	12.4 (75)
원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22.5 (95)	29.9 (181)
내용이 너무 고리타분해서	27.0 (114)	13.0 (79)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6.9 (29)	15.7 (95)
대학 입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0.4 (44)	13.2 (80)
기타	3.3 (14)	7.8 (47)
합계	100.0 (422)	100.0 (606)

6. 종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1) 종교교사

종교교육에 대하여 느끼는 종교교사들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곧, 1998년 조사에서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단 7.4%에 그쳤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전체의 72.1%에 이르렀다.

〈표 21〉 종교교육에 대한 만족도(종교교사)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매우 만족	0.0 (0)	12.1 (4)
어느 정도 만족	7.4 (2)	60.6 (20)
보통	44.4 (12)	21.2 (7)
약간 불만족	29.6 (8)	0.0 (0)
매우 불만족	0.0 (0)	0.0 (0)
무응답	18.5 (5)	0.0 (0)
합계	100.0 (27)	100.0 (33)
평점	2.22	3.67

*1998년 조사는 항목을 %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매우 만족'은 80~100%, '어느 정도 만족'은 60~80% 등으로 나타내었다.

2) 학생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번 2016년 조사(M=3.79)의 전체적인 평점이 1998년 조사(M=2.95)에 비해서 0.84점이 상승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만족한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은 지난 1998년 조사의 35.5%에서 61.4%로 25.9%가 더 증가하였다.

〈표 22〉 종교교육에 대한 만족도(학생)

정도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매우 만족	13.3 (183)	18.8 (472)
어느 정도 만족	22.2 (312)	42.6 (1,070)
보통	27.3 (384)	35.9 (902)

약간 불만족	21.5 (302)	1.8 (45)
매우 불만족	15.8 (222)	0.2 (4)
무응답	0.1 (2)	0.7 (17)
합계	100.0 (1,405)	100.0 (2,510)
평점	2.95	3.79

*1998년 조사는 항목을 %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매우 만족’은 80~100%, ‘어느 정도 만족’은 60~80% 등으로 나타내었다.

7. 종교교육시 타종교 학생 배려

1) 종교교사

종교교사의 입장에서 타종교 학생을 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199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변화가 매우 두드러진다. 곧, 비교한 바에 따르면, ‘배려하고 있다’고 답한 담당자들이 지난 1998년 조사 때보다 약 15% 정도 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3〉 종교교육시 타종교 신자학생 배려 여부

항목	1998년 조사 %(N)	2016년 조사%(N)
배려하고 있다	74.1 (20)	90.9 (30)
배려하지 않고 있다	18.5 (5)	3.0 (1)
무응답	7.4 (2)	6.1 (2)
합계	100.0 (27)	100.0 (33)

2) 학생

지난 1998년 조사에 비해 2016년 조사에서는 ‘천주교에 관한 것만을 강조한다’ 혹은 ‘천주교를 강조하고 다른 종교는 조금만 언급한다’는 부정적인 항목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반면 ‘타종교와의 협력 및 대화를 강조한다’는 의견은 지난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종교교육시 타종교 학생이 느끼는 배려 정도

항목	1998년 조사 % (N)	2016년 조사 % (N)
천주교에 관한 것만을 강조한다	4.8 (67)	3.1 (56)
천주교를 강조하고 다른 종교는 조금만 언급한다	18.9 (265)	9.1 (161)
다른 종파 및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존중한다	54.2 (762)	51.6 (918)
타종교와의 협력 및 대화를 강조한다	15.7 (220)	25.5 (453)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3.8 (53)	7.8 (139)
무응답	2.7 (38)	2.9 (51)
합계	100.0 (1,405)	100.0 (1,778)

V. 결론 및 제언

1. 설문분석 결과

1) 종교수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1) 교육 내용 비율: 종교교사들은 ‘윤리·도덕·인성교육’에 가장 큰 비중(43.33%)을 두고 수업 한다고 답하였다. 이어서 ‘가톨릭 이해’(19.80%), ‘종교 일반’(14.51%),

그리고 ‘타종교 이해’(13.73%) 순서로 응답했다.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윤리·도덕·인성교육’의 비중이 약 10% 높아진 반면 다른 항목들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2) **종교 교과서:** 종교교사들의 28.8%만이 종교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 교과서를 사용 비율은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77.8%에서 2016년 현재 36.4%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종교 교과서의 사용 비율과는 반대로, 만족도는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불만족이라고 답한 교사들이 지난 1998년 조사의 44.4%에서 이번 2016년 조사에서는 27.2%로 감소하였다.

2) 종교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응답한 종교교사들 중 67.3%가 정규교과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고 답하였다. 이러한 종교수업의 평가 방식은 ‘과제물 평가’(27.8%), ‘출석률 및 태도 평가’(22.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사회 봉사 평가’는 1998년 조사에서 무응답에 그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12.5%가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기록 방식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생활 기록부에 이수만을 기록한다’고 말한 종교교사가 전체의 23.1%를 기록하였다. 또한 ‘생활 기록부에 문장으로 수업 결과 및 태도 등을 기록한다’고 말한 종교교사는 25.0%를 기록하였다.

3) 종교교사의 여건은 어떠한가?

종교교사들은 ‘서울대학교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통해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0.4%), 이어서 ‘교직이수’를 한 종교교사가 전체의 36.5%(고등학교 종교교사들 중에 서는 39.4%)를 기록하였다. 지난 1998년 조사에서 교직이수 종교교사가 전체의 11.1%였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재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 있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제도의 미비’ 및 ‘교과 뿐 아니라 종교행사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상황’으로 각각 26.9%를 차지하였다. 특히 이 항목들을 지난 1998년 조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종교교사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과중해지고 있으며 반면 종교교육에 대한 교육제도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4) 종교교육이 진행되는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가?

학생들의 종교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 종교 시설과 관련, 1998년 조사보다 긍정적인 중요성을 더 많이 응답한 항목은 ‘성당(경당), 각종 성상, 십자가상(각 교실)’이었던 반면, 응답률이 하락한 항목은 ‘종교교실, 성체조배실, 종교상담실, 성모동산’ 등으로 나타났다.

5)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 인식은 어떠한가?

종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2016년 조사(M=3.19)는 지난 1998년 조사(M=3.38)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가톨릭 학생들(M=3.46)과 개신교 학생들(M=3.11)은 전체 평균(M=3.07)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종교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이유는 ‘원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30.8%로 1위를 기록하였다. 1998년 조사와 비교하면 ‘천주교의 종교 내용만을 너무 강조해서’, ‘내용이 너무 고리타분해서’ 등의 항목 응답 비율은 이번 2016년 조사에서 현저히 낮아진 반면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학 입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 세 항목은 비율이 증가하였다.

6)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종교교육의 만족도에 대하여 1998년 조사(M=2.22)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번 조사(M=3.67)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도 지난 1998년 조사(M=2.95)에 비하여 이번 2016년 조사(M=3.79)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종교교육에 대하여 종교교사 및 학생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톨릭 학교 교육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7) 종교교육시 타종교 학생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느끼는가?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타종교 신자 학생들을 위하여 배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 1998년 조사의 74.1%보다 증가한 90.9%를 기록하였다. 특히 타종교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련한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였을 때도, 응답한 학생들의 54.5%가 ‘다른 종파 및 종교에 대해 어느 정도 존중한다’고 말하였으

며, 특히 이 비율은 종교별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았을 때 개신교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59.7%를 차지하였다.

2.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종교교육의 현실태에 대하여 조영관의 1998년 연구 조사와 함께 그 동안의 변화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1) 비교연구의 종합적 분석

지난 1998년 조사와 2016년 조사를 비교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수업 내용’이다. 우선 1998년 조사에 비하여 ‘윤리·도덕·인성교육’ 수업 비중이 2016년 조사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반면 종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업 비중은 감소하였다. 종교수업시 사용하는 교과서와 관련, 만족도는 1998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실제 사용 비중은 2016년 조사에서 더욱 낮아졌다. 또한 종교수업 평가를 하는 학교는 1998년 조사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큰 증가는 아니었다. 이를 통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종교교육의 여건 및 환경’이다. 지난 1998년 조사에 비하여 교직이수 및 서울 대학교 종교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종교교사의 인원수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종교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종교교육과 관련한 교육 제도의 미비’ 및 ‘교과 뿐 아니라 종교행사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상황’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 항목들은 1998년 조사와 비교하여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를 통해 종교교사들의 여건 및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이다.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만족도는 이번 2016년 조사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가톨릭 학교 교육 전반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응답한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2016년 조사에서 더욱 낮아졌다. 특히 종교교육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의 이유와 관련하여, 1998년 조사에서는 ‘천주교의 종교 내용만을 너무 강조해서’가 높았는데, 이번 2016년 조사에서는 ‘원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등의 항목 비율이 증가하였다. 실제로 종교교육시 타종교 학생에 대한 배려의 항목도 지난 1998년 조사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 이로서 ‘종교교육’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 수준은 더욱 낮아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98년 조사와 2016년 조사의 비교 분석을 통해 두드러진 차이를 세 가지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과 관련한 현실태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가톨릭 학교에 대한 정체성 및 목적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2) 종교 교과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점차 낮게 생각하고 있다 (4) 종교교사들의 환경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5) 정규교과로서 종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6) 교육과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7) 학생들과 사회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종교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상 다음에 제시하는 개선 방안의 내용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도 있으며, 또한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1)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의 목적성 확립: 미국의 NCEA(미국 가톨릭 교육 연합회)³⁵⁾와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혹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 기관이 한국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립학교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 종교교육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 종교 교과서 활용 증대: 종교 교재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연구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이 교회의 차원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향후 종교 교과서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가능한 설문 등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이끌어내는 종교교육: 각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좋은 수업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35) 미국 가톨릭 교육 연합회(National Catholic Education Association, NCE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교육 전문 협회이다. NCEA는 가톨릭 교회의 지속적인 신앙 형성과 교육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가톨릭 교육자들과 협력하는 기구이며, 현재 전세계 가톨릭 학교의 190 만 명 이상의 학생들과 150,000명 이상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관련된 업무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 Cf. https://www.ncea.org/NCEA/About/About_Us.aspx

더불어 종교 교과서가 현대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4) **종교교사의 양성 및 환경 개선:** 각 학교 내 종교부서는 학교 내 신자 교사 혹은 지역 본당 봉사자들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 현재의 과도한 업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일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평신도 교사들도 종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5)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 정규교과로서의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 학교 및 관련 교회 기관은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금보다 더욱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마련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6)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 『2015 개정 중교학 교육과정』은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 및 종교교육의 목적성과 상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종교교사들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종교교육에 대하여 잘못된 국가 정책이 있을 경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혹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7) **학생들의 특성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종교교육:** 미국 NCEA에서와 같이,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그리고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그리고 하느님에 대하여 정향된 인간은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완전한 교육은 종교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가톨릭 학교이다.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은 지금까지 수없이 계속된 난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는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 학생들의 인구 감소 및 학교 운영의 어려움, 개인주의, 양극화, 물질만능주의, 생명 경시 현상, 환경오염, 그리고 자본주의 등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이처럼 여러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지만,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종교적 가치와 과학적 요소가 균형을 맞추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종교교육을 통하여 신자 학생 및 비신자 학생들까지도 가톨릭 교회의 정신을 올바로 새길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전인적 인간의 완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래에도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특히 학교의 정체성을 이루고 학생들의 전인적 완성 및 복음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은 젊은이들의 정신과 마음이 가톨릭 교회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또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직한 시민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앞으로 현대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과 조화롭게 교육하는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이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사목』제57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8).
- _____.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제13호(200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_____. 「학교 종교 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제41호(2010).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_____. 「가톨릭 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제19권 2호(2014).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경이. 「학교 종교수업, 수업을 생각할 것인가?」. 송순재 엮음. 『왜 기독교학교인가: 기독교학교교육』. 서울: 기독한교. 2014.
- 김율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현황 조사」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심포지엄 자료집』(서울: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2005).
- 문화체육관광부. 『바람직한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종교의 역할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2.
- 박재운 외. 『가톨릭 학교 관련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서울: 가톨릭 문화원. 2007.
- 베네딕토 16세. 『주님의 말씀』.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
-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3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안병초, 『교육의 길을 가다』, 서울: 마리아회유지재단 출판사, 2013.
- 요한바오로 2세, 『현대의 교리교육』,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0.
- 이현승, 「불분명한 믿음과 미국 사회의 세속화?」 『한국사회학』제43권 제4호(서울: 한국사회학회, 2009).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1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_____, 「한국 가톨릭계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1998).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철학』,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1.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천주교회사』4,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 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개정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1.
- _____, 『한국천주교회 통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6.
-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the Apostolate(CARA), *Global Catholicism: Trends & Forecasts*, Georgetown University, 2015.4.
- Thomas H. Groome,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NY: HarperOne, 2011.

원고접수일: 2018년 6월 14일, 심사일: 2018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0일

연구자 소개: 김홍주

① 전공 : 실천신학 / 소속: 천주교 서울대교구 화곡2동 성당 보좌신부

② 관심영역: 가톨릭 학교교육, 종교교육

③ E-mail: starriday@gmail.com

연구자 소개: 조영관

① 전공: 교육행정 및 정책 / 소속: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가톨릭 학교교육, 교사교육, 종교교육, 청소년 신앙교육

③ 주요논저: 「한국 가톨릭 학교교육의 역사」, 「가톨릭학교 교사의 신앙·헌신·가톨릭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가톨릭 교사의 신앙과 가톨릭 학교 복음화와의 관련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안에 나타난 가톨릭교회의 교육에 관한 관점」,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의 종교교육」

④ E-mail: choeric@hanmail.net

Abstract

The Study on the Status and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econdary School of Korea

- Focused on the Analysis of Changes in 1998 and 2016 -

Kim, Hong-Joo · Cho, Young-Kwan
Archdiocese of Seoul · Dongsung High School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Catholic secondary school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m, suggesting ways to improve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chool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Catholic Churc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religion education for religious teachers and students of Catholic secondary schools in Korea. And this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1998, and confirmed the trends in how religious education and related environments of Catholic secondary schools have changed over the past 20 years. So this study suggests current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by analyzing the degree of change in religious educati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1998 survey and the 2016 survey is as follows: (1) With regard to the content of religious class, the proportion of classes directly related to religion decreased while the proportion of 'ethics, moral and personal education' classes increased.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level with religious textbooks has increased, but the proportion actually used has been lowered. (2) In respect to religious education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the proportion of teachers who have obtained 'completion a course in teaching profession'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increased. Also, many of the religious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d that the educational condition and environment did not improve. (3) it was confirmed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had a higher perception of religious education,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the rate of students, who accepted religious education negatively for no particular reason, increased.

The direc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schools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1) Establishing the objectives of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chool (2) Increase the use of religious textbooks (3) Religious education that attracts students' interest and motivation (4)

Cultivating and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religious teachers (5) Religious education as a regular subject (6) Correct awareness of educational policy (7) Religious educ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changes in society.

Key words: Catholic school, Religious education,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curriculum, Religious teachers and students, Religious textbook